광주환경공단, 15년째 '사랑의 감' 나눔

광주환경공단은 올해로 15년째 제1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재배한 '사랑의 감' 65박스를 지난 25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처리장 주변에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27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제1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서 재배·관리하는 349주의 감나무에서 수확한 단감 50박스와 대봉 15박스를 포함해 총 65박스를 마련했다. 직원들이 직접 선별하고 포장한 감은 유덕동 행정복지센터에 20박스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 자립지원 전담기관 및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10박스,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 25박스를 전달하며 나눔을 완료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지난해 60박스를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각고의 노력으로 양질의 제철 감을 수확해 많은 이웃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나눔을 통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 안정 운영'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가 제3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정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23년 574억에서 2024년 287억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 80억8700만원으로 72%를 추가로 삭감했다. 대폭 삭감된 2025년 예산에는 사업운영비와 처우 개선비만 편성돼 있으며, 이 중 예술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형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이관의 이유로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린 것이며, 예술강사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꺾어버린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소방, 고층건축물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광산소방은 지난 23일 관내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로 광산구 관내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와 힐스테이트 첨단이 있다.

이날 훈련은 고층건축물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비상계단을 이용한 진입 훈련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고가사다리차 전개 훈련 △비상계단 진입 훈련 △고층건축물 구조 및 소방시설 점검 등이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 화재를 대비한 특수차량 조작과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경찰, 지정 문화유산 방범진단

광주 광산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광산구 지정 문화유산 28개소(국가지정 2개·광주시지정 26개)를 대상으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광산경찰은 광산구 광산동에 위치한 월봉서원(광주시 기념물 제9호)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 도난·훼손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광산구·119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중이다. 특히 도난·훼손이 우려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방범창 등 방범시설 유무, CCTV 작동상태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위주로 점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및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관형 광산경찰서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치안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니어 가을 운동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지난 25일 시니어 가을운동회 '스포츠 대항전'을 성료했다.(사진)

27일 효령복지타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당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파크골프, 윷놀이, 장기·바둑 등 7개 종목의 경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구립 해나무어린이집 원생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 따뜻한 교류가 이뤄졌으며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냈다. 또 스포츠 대항전은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 사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우정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였으며, 우승팀에게는 후원받은 쌀이 수여됐다.

효령타운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통공사, 우수기관사 임인석·김우람씨 선정

광주교통공사는 2024년 한 해 최고의 운전 기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고객 수송에 최선을 다한 우수기관사로 임인석(47), 김우람(30) 기관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임 기관사는 지난 2003년 공채 1기로 입사 후 지금까지 무사고 운행 27만㎞ 달성과 뛰어난 고장조치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기관사로 선정됐다. 김우람 기관사 역시 10만㎞ 무사고 운행 등 뛰어난 이례상황 대응 역량으로 우수 기관사에 이름을 올렸다.

임 기관사는 "평소 운행 시 기술, 초동조치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며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이 되는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은 웃음을 보였다.

또 다른 우수기관사로 선정된 김 대리 역시 "과거 신규 기관사로 실무를 익힐 때 선배 기관사로부터 배운 운전 노하우로 꾸준히 연습했고, 평소 운행 중 고장 등 이례 상황을 대비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자신감을 키워왔다"면서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열차 운행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사는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사 운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통 이후 매년 '올해의 기관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론 및 기술실기, 응급조치 능력, 운전기량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만 우수 기관사에 오를 수 있다.

노병하 기자

북구의회, '초등생 경제교육 활성화' 간담회

광주 북구의회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24일 '유관기관 및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광주은행 브랜드전략부 ESG사회공헌팀과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과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주은행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훈 대표의원은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과 북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가 육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농기센터-광주농협, 농촌 활력화 협약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협 광주본부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경제 발전과 공익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행복농촌 이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장,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해 농촌 활력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업환경분석, 도시민 대상 농촌문화 확산, 쌀·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 실익증진 등 농촌지역 공익사업 △지역농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판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영농활동 지원 및 소외지역 사회공헌 사업 △기타 교류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행복농촌 이음 협약을 계기로 상호협력해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서효림 "엄마 가지마" 오열… 김수미 영면

탤런트 김수미(75·사진)가 영면에 들었다.

김수미 발인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사근동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용인아너스톤에서 잠들 예정이다. 며느리인 탤런트 서효림은 운구차를 바라보며 "엄마 미안해" "엄마 가지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남편 정창규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았고,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비통해했다. 개그맨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 '수미네 반찬'(2018~2021) 문태주 PD 등이 운구를 들었고, 탤런트 이숙, 김나은 등도 고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빈소는 유족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영정사진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캐릭터 포스터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 모습이 안타까움을 줬다.

김수미는 25일 오전 심정지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 돼 사망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다. 정 이사는 "전원일기 '일용 엄니'에서 연극 '친정 엄마'까지 평생을 모두의 어머니로 웃고 울며 살았다. 언제나 연기에 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청자 곁에 머물렀다"며 "나와 가족들도 오랜 세월 보내준 성원과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애도해주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뉴시스